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화 소송 추가 접수중!

6월 16일 공개 설명회 개최, 6월 말까지 3차 소송단 모집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6월 말까지 3차 정규직화 소송단을 모집합니다. 1, 2차 소송에 총 60명이 참여했습니다. 작년 10월 2차 접수 이후에도 현대차, 기아차 등에서 정규직화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정규직화 집단소송에 참여할 때입니다. 노조는 승소를 자신합니다.

최근 분사업체의 임금 대폭 인상 사례로 보듯, 정규직 전환요구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만으로도 노동조건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꼼수로 정규직화 소송을 막을 것이 아니라 1만 8천여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출범에 맞춰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분사업체 정규직화 소송 막으려 원청 임금 85% 수준 인상 합의로 회유한 포스코

포스코가 분사업체 노동자의 정규직화 소송과 금속노조 가입을 막으려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합의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포스코가 정규직화를 막기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 회유에 나서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작년 8월 17일 광주고등법원 승소 이후 10월에 2차 집단소송에 이어 올해 대규모 3차 집단소송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2006년 포스코에서 분사한 업체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과 집단소송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포스코는 분사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3년 안에 포스코 동일 입사자 대비 85%까지 임금을 올려주기로 합의했다 합니다. 다른 분사업체도 금속노조 가입 후 소송을 추진하자 포스코가 협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더 많은 것을 내줘야하기 때문에 포스코가 회유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켜만 보면서 커지는 차별을 감내해야 할까요?



6/16 3차 정규직화 소송단 <공개설명회>로 오세요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변호사에게 직접 듣고 질문하는 자리!

일시	2017년 6월 16일(금) 오후 4시
장소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3층 다목적실 (광양시 중동 1658)
강사	권두섭 변호사
	(포스코 사내하청 정규직화 소송 담당변호사 중 1인)

◀ 권두섭 변호사

포스코 원하청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이유?

포스코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포스코 패밀리임을 강조합니다. 동료나 짝의 의미로 '외주파트너사' 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처우에 있어서는 극심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원청에서 협력업체로 외주화된 업체들은 원청직원 대비 70%선의 임금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격차가 벌어져 50%대 수준까지 떨어지자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외주화 당시 임금보전 약속은 대표이사의 직인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분사업체가 아닌 협력업체는 이보다 더한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청 직원의 40% 남짓 받는 협력업체 S사, P사의 노동자들은 결국 원청 포스코를 상대로 정규직화 소송에 나섰습니다. 2003년부터 이어진 권리 찾기는 바로 포스코의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이로 인한 불만이 원인입니다.

현재 28년 정도 일한 원청의 정규직 연봉은 1억 2천만원입니다. 협력업체에 다니는 자신의 연봉과 비교해 보십시오.



정규직,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연이은 정규직화 판결 승소,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축소 약속

2010년 현대차의 대법원 판결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소송(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거의 대부분 노동자들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비제조업인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소송에서는 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전원 정규직화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요구를 하며 투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소송에서 졌거나 법적으로 가능성이 낮거나, 증거 확보 등이 어려워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차별의 설움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펼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사용자들 또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승소한 기업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노동자를 알아서 챙겨준 경우는 없습니다.



행복하길 바란다면 금속노조에 가입하십시오

이미 고등법원 승소 판결을 일궈낸 금속노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손을 내밀면 비정규직 차별에서 벗어나는 길이 가까워집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 행복한 삶이 눈앞에 있습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해 정규직화 소송에 나서는 것이 시작입니다.
금속노조의 문을 두드리세요!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송참가 문의 061) 762-2956

010-8604-5533 | 010-5460-2955 | 010-4877-6670

